

<연세대학교 2014 인문계열 문제 1번>

공감은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가)와 (나)는 타자에 대한 공감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대인에게 공감하지 못했다. 이는 아이히만이 유대인의 감정과 상태를 내면화하지 못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들을 학살했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나)의 화자는 비둘기에게 공감했다. 이는 비둘기가 하늘이 없는 상태에 처해 답답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화자 또한 감정이입하여,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라고 말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표면적 공감이다. 아킬레우스는 자신 또한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며, 죽음에 처한 뤼카온의 상태에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왜 비탄에 빠져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뤼카온의 감정에는 공감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킬레우스의 공감은 불완전했으며, 뤼카온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가)의 아이히만과 비교할 때, (다)의 아킬레우스는 타자가 처한 상태에는 공감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아이히만은 타자가 죽음에 처한 상황을 단지 명령으로만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행동했다. 한편 아킬레우스는 타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죽을 운명임을 시인했다.

반면 (나)의 화자와 비교할 때, (다)의 아킬레우스는 타자의 감정에는 공감하지 못했다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화자는 비둘기의 답답한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 또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슬프고 두려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다)의 아킬레우스는 (가)의 아이히만에 비해서는 타자의 상태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나)의 화자에 비해서는 감정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표면적이며 불완전한 공감의 태도임이 드러난다.

(992자)

<연세대학교 2014 인문계열 문제 2번>

공감은 상상, 주체, 폭력의 개념을 통해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 (가), (다), (라)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은 상상과 주체성이 결여되어 그 결과로 폭력이 나타난 것으로서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보여 준다. 먼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상상의 결여를 알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을 어떤 상태에 처하게 할 것인지를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말에서 주체성의 결여가 나타난다. 그 결과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폭력을 가했고 이는 곧 공감의 부재가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다)의 아킬레우스는 주체성은 있으나 상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그 결과로 폭력이 나타난, 불완전한 공감의 사례를 보여 준다.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타자가 처한 상태에 자신 또한 처할 수 있음을 상상함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느냐는 말을 통해, 죽음을 앞둔 뤼카온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은 온전하게 상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아킬레우스는 주체적 행동에 따라 뤼카온을 살해했고, 이는 곧 불완전한 공감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반면 (라)의 워딩턴은 상상과 주체성이 발현되어 폭력이 나타나지 않은, 공감이 이루어진 사례를 보여 준다. 폭력으로 인한 끔찍한 경험을 겪은 워딩턴은 자신 또한 그와 같은 폭력을 통해 복수하는 것을 상상했다. 이러한 상상의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도 타자와 같은 폭력적 감정을 지닐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곧 공감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폭력의 지양을 야기했고 타자의 폭력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론적으로 타자에게 공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상임을 알 수 있다. (가)에서 주체성과 상상의 부재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력이 나타난 사례와, (나)에서 주체성이 있더라도 상상이 없으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력이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라)와 같이 상상을 통한 공감이 이루어질 때에야, 주체적으로 폭력을 지양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1051자)